

조선의 마음이 빛어낸 예술혼

《너그러움과 해학》 펴낸 정양모 국립중앙박물관장

모든 예술작품은 그것이 터잡고 있는 산천과 사람을 닮았다. 마을을 휘감아도는 실개천, 황혼녘의 처마에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 어질디 어진 민중의 심성은 부드러운 곡선의 미학과 질박한 생활용품을 낳았다. 조선의 마음이 바로 회화와 도자기의 예술혼으로 빛어졌던 것이다. 낡을수록 좋은 것은 세월의 이끼에도 그 빛을 잃지 않는 전통에인들의 미학일 것이다.

자연과 하나이고자 한 바람

우리 민족문화의 정화가 숨쉬고 있는 국립중앙박물관의 수장 정양모 관장(64)이 펴낸 《너그러움과 해학》(학고재)은 글을 재료로 삼아 빛은 전통예술 예찬론이다. 특히 조선시대 전통회화나 도자기 등에 담긴 독특한 아우라를 섬세하게 읽어낸다.

“오랫동안 전통예술 속에 스며 있는 미의식에 대해 생각해왔습니다. 예술은 그 나라의 자연과 시대를 반영하죠. 우리의 전통예술 속에는 자연과 철학적 이념의 변화가 담겨 있지만 그 기저에는 통합적 미의식이 깔려 있습니다. 자연과 어우러져 자연과 하나이고자 하는 바람이 바로 그것입니다.”

한국미에 대한 장인적 탐색의 산물인 이 책은 우리 미술의 특성을 조선시대 회화와 도자기를 중심으로 살핀다. 특히 분청사기와 백자로 대표되는 조선 도자기의 세계를 너그러움과 해학의 정신으로 요약한다. 조선시대 백자의 보름달 같이 너그럽게 잘생긴 향아리나 약간 일그러진 향아리조차 그 모양을 밟지 않게 본 우리의 심성 때문이었다.

정관장은 한국예술의 근간이 자연에 절대 불변하는 내재적 원칙과 가변적인 외형적 변화를 포괄하는 것으로 본다. 이는 자연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표현된 것이다. 이러한 한국미술의 특징이 가장 잘 표현된 시기로 18세기를 꼽는다.

“한국미술사에서 18세기는 간결한 한국미의 정수가 표현된 시대였습니다. 한민족의 전통을 기반으로 자아에 대한 성찰과 각성을 통해 새로운 경지를 개척했습니다. 자아의 각성과 독창성은 당시 문화전반에 걸쳐 이루어졌지요. 종래의 중국적 소재에서 벗어나 우리의 자연과 생활에서 소재를 찾았던 것입니다.”

“식민주의자들은 조선시대 백자의 아름다움을 슬픔과 한의 미라고 우깁니다. 가난하게 평생을 살아온 도공들의 한이 맺혔다는 것이죠. 그러나 조선백자는 풍만하면서 유연하고 유려한 선의 흐름이 있습니다. 평생 한탄 속에 살았다면 그렇게 원만한 아름다움이 나올 수 없지요.”



정양모 관장.



그러나 19세기 민족문화의 르네상스는 일제 식민지라는 악몽을 만나 좌절되고 말았다. 일제의 식민사관은 우리의 미의식에 대해 심대한 왜곡으로 일관했다. 일본인 학자들은 대부분 감상적인 측면과 식민주의적인 안목으로 우리 미술을 보았다.

“식민주의자들은 조선시대 백자의 아름다움을 슬픔과 한의 미라고 우겼습니다. 못살고 가난하게 평생을 살아온 도공들의 한이 도자기에 맺혀 있다고 본 것이지요. 그러나 조선백자에는 풍만하면서도 유연하고 유려한 선의 흐름이 있습니다. 평생을 한탄 속에서 살았다면 그렇게 원만한 미가 나올 수 없지요.”

도자기에서 발견한 선조들의 삶

정관장이 문화유산의 단아한 아름다움에 깊이 빠져들게 된 것은 대학시절 고적을 답사하면서부터였다. 서울대 사학과에 다닐 때 스승인 이병도·김삼기·유홍렬 교수 등과 함께 전국의 사찰과 고분 등 현장을 찾아 전통미술을 보는 안목을 길렀다. 대학 졸업 후 공군에 입대하여 국사교관으로 재직하면서 역사와 함께 한국미술에 대해 강의했다. 답사여행을 주도하면서 자료를 얻기 위해 자연히 박물관을 자주 드나들게 되었다.

대학졸업 후 진로를 결정할 때 주위에서는 박물관에 들어갈 것을 권했다. 생동감 있는 우리 학문을 위해 적절한 곳이라는 이유였다. 1962년부터 국립중앙박물관에 들어가 회화·공예·조각을 연구하는 미술부로 발령을 받았다. 최순우 선생의 권유도 있었다. 정

관장이 맨 처음 맡은 것은 도자기 조사였다.

“당시 고고학계에서는 도자기 연구를 우습게 여겼습니다. 사금파리나 주우러 다닌다고 빈정거렸지요. 그러나 점차 도자기의 매력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선조들의 생활미감이 가장 진솔하게 드러나는 것이 바로 도자기였지요.”

도자기에 대한 연구와 학문이 깊어지면서 《이조도자》(동화출판공사)·《분청사기》·《백자》(중앙일보)·《한국의 도자기》(문예출판사)·《고려청자》(대원사) 등의 책을 펴내기도 했다. 풍만하면서도 질박한 우리네 선조들이 남긴 삶의 결을 읽어낸 기록이었다.

정관장은 73년부터 75년까지, 84년부터 86년까지 두 번에 걸쳐 국립경주박물관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재임중이던 1975년 성덕대왕신종을 경주 동부동의 옛 박물관에서 현재의 인왕동 박물관으로 옮기는 대역사를 맡았다. 박물관 책임자로서 종교적 심성과 예술적 위대성이 결집된 종을 옮기는 데 노심초사하지 않을 수 없었다.

경주의 온 시민이 발벗고 나서 종은 무사히 옮겼다. 그러나 신식 기술과 자재로 만든 종고리에 탈이 생기고 말았다. 강철 덩어리 28톤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종고리가 휘어지고 벌어졌던 것이다. 분하고 원통한 마음을 억눌러야만 했다. 결국 원래 종을 매달았던 철봉을 매달 수밖에 없었다. 현대 과학기술의 완패였던 것이다.

“과학은 이론뿐만 아니라 경험에 토대해야 합니다. 급속은 강하기만 하면 부러지고 유연하기만 하면 휘어집니다. 수천년의 경험

으로 이를 알았던 우리 선조들은 기다란 판을 단조(鍛造)로 때리면서 말아 강함과 유연함을 절묘하게 조절했던 겁니다.”

늘 곁에 있는 박물관으로

93년부터 국립중앙박물관장으로 근무하면서 가장 보람 있었던 일은 많은 시민들이 박물관을 찾을 때였다. 민족문화유산이 단순히 잊혀져가는 유물로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단련을 거쳐 오늘에까지 그 여운을 길게 드리울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정부기관의 구조조정이라는 차원에서 국립중앙박물관의 민간이양이 논의되고 있다. ‘문화통치’를 강화해야 할 시점에서 나온 것이라 더욱 안타깝지만 하다. 국가의 문화중추기관인 박물관은 자본과 상업의 논리에 맡겨서는 안될 것이기 때문이다.

“21세기는 문화의 시대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문화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문화의 정곡을 이해해야 해요. 그것은 바로 우주만물의 원리처럼 전체적인 균형과 조화의 정신입니다.”

앞으로 박물관의 기구와 예산을 개혁하고 전문가 양성에 주력할 생각이다. 박물관을 국민의 박물관으로 늘 곁에 있으면서 찾고 느끼고 이해하는 곳으로 만든다는 다짐이다. 아울러 전통예술의 아름다움을 글의 형식으로 널리 알리는 데도 힘쓸 것이다. 너그러움과 해학의 정신이 넓고 깊이 우리 생활 속에 뿌리내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 박천홍 기자